

주부의 Life-Style과 시간제약지각 및 시간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ife-Style, Perceived Time Pressure, and Time Management Strategies of Married Women.

서 미 경

동아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Seo, Mi Kyung

Dept. of Home Management, Graduate School, Dong-A Univ.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to the life-style, perceived time pressure and time management strategies of married women.

The research issues are as follow :

1. How are Life-styles influence to the perceived time pressure according to employment status of marraged women?
2. How are life-styles influence to the time manegement strategies according to employment status of marraged women?
3. How much are the effect of life-style, perceived time pressure and the rest of variable on the time management strategies of marraged women?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585 questionnaire were distributed to marraged women living in pusan.

The data were analyzed by statistical methods such as Pearson's correlation, percentage, factor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The significant results are as follow :

1. According to the employment status, there were several differences among those life-stlyes which are influencing to the perceived time pressure.
2. According to the employment status, there were differences among those life-stlyes which are influencing to the time management strategies.
3. Independent variables about the time management strategies of married women showed life-style(B=.46), age(B=-.18), income(B=.15), perceived time pressure(B=.12), education level(B=.07).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attributed to develop the efficient strategy of reducing perceived time pressure of marraged women.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산업화 이후 노동력 수요의 증가 및 직업의
다양화, 남녀 평등사상의 보급, 가족구조의

변화, 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
는 육구의 증대 등 사회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가치관의 변화는 여성의 Life-Style에 많은 변
화를 초래했다.

그러므로 라이프 스타일은 사회의 변화와
그것에 따른 개인의 가치, 의식의 흐름에 따라

거듭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사용 자료는 생활양식의 지표이자 사회 지표이면서(Robinson, 1976) 중요한 사회변화의 척도가 된다고 보고 집단간의 생활양식을 비교하거나 국가간의 사회 변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시간사용 연구를 했다. 그러므로 Life-Style은 개인의 시간사용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개인의 Life-Style과 생활태도에서 직접적으로 반영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대사회는 생활양식이 매우 복잡 다양하고 세분화되어 있어 인간이 생활하기 위해 시간을 할당해야 할 영역이 과거보다 크게 증가하여 시간은 보다 희소한 자원으로서 가치가 증대되어 오고 있다.

그런데 시간의 양은 한정되어 있다. 한정된 시간 중에서도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시간을 제외하고 자유재량의 시간은 더욱 제한 받게 되며 이러한 제한된 시간내에서 주부는 가정생활, 개인생활을 영위해야 한다. 특히 취업주부는 직장생활의 부담이 부과된다. 즉 가정 밖의 직장인으로서의 역할과 가정내의 주부로서의 역할들을 모두 수행해야 하는 과중한 노동 부담과 함께 이로인한 시간 부족을 항상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주부가 느끼는 시간제약은 주부 자신의 생활에 대한 압박감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원에게도 영향을 미치므로 전체 가정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간제약을 받고 있는 주부들은 이것을 완화 시킬 수 있는 여러가지 대처전략을 모색하게 되는데(Chung, 1988), 주로 가사노동의 수행방안으로 가족원 간의 분담, 가정기기 및 상품의 대체, 수행표준의 조정, 그리고 상황과 자원에 따른 주부자신의 생활 시간 분배의 조정 즉 여가나 수면시간의 감소 등의 방안을 채택 사용한다.

그런데 이들이 선택한 시간관리행동전략의 사용정도는 가족환경적 요인, 심리적 요인, 가사노동관련 요인 등 자신의 여러가지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Strober & Weinberg, 1980 ; Nickols & Fox, 1983 ; 이승미, 1989 ; 조성은, 1991). 그동안 주부를 대상으로 가족환경적 변인, 심리적 변인, 그리고 가사노동 관련변인 등 각각의 변인에 따른 역할 갈등이나 시간제약 대처전략에 관한 연구들(이원표,

1983 ; 장병욱, 1985 ; 정혜정, 1985 ; 김명자, 1991 ; 최자명, 1991 ; 전영자, 1991 ; 조성은, 1991)이 많이 이루어져 왔다.

이렇듯 시간관리를 수행하는 데에는 사람마다 많은 차이가 있어 개인적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시간사용의 계획이나 계획된 시간을 수행하는 데에는 개인이 속한 환경의 특성이나 그 구성원들에 의해서 제한을 받게 된다. 따라서 Life-Style 유형별로 주부가 지각하는 시간제약은 서로 다를 것이므로 이들이 시간제약을 완화시키기 위해 선택·사용하는 시간관리 행동의 정도는 Life-Style과 시간제약지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Life-Style이 시간제약지각 및 시간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Life-Style, 시간제약지각과 시간관리행동에 관한 연구를 본 연구에서 시도해 보았다.

본연구의 목적은 주부를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로 구분하여, 1) 이들의 Life-Style이 시간제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며, 2) Life-Style이 시간관리 행동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고, 또한 3) Life-Style과 시간제약지각 및 제변인이 시간관리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비교·분석하는데 있다.

2. 연구문제

이상의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Life-Style이 시간제약지각에 미치는 영향은 주부의 취업유무에 따라 어떠한가?
2. Life-Style이 시간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주부의 취업유무에 따라 어떠한가?
3. Life-Style과 시간제약지각 및 제변인이 시간관리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Life-Style

Life-Style 개념은 Max Weber에 의해 비롯되었는데, Max Weber(1968)는 사회계층을 경제적 관계, 특히 생산체제로의 참여의 형태,

즉 부르조아와 프로레타리아로만 이해하는 것은 매우 불충분하다고 하여, 계급외에 지위그룹이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다.

Duncan(1969)에 의하면 "Style이라고 함은 그것을 표현하는 행위자에 대해서 주관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스타일이 공유되고 있는 집단에 대해서는 객관적 의미를 갖는 표현이나 양식이다"라고 하였다

Adler(1969)에 의하면 인간은 외부의 자극에 대해 단순한 반응자가 아니라, 목표지향적이고 능동적인 자기통일성을 가진 존재이므로, 과거 생활환경에 대한 대처 경험 또는 생활과제의 독자적인 해결방법 및 미래의 목표를 향한 노력에서 통일성과 일관성이 있게 되며 이러한 전체적인 일관성이 Life-Style이라고 하였다.

Gross, Crandall, Knoll(1981)은 "광범위하게 말해서 Life-Style은 생활을 영위하는 기본정신과 인간의 내면에 형성되어 있는 가치가 생활로 나타난 결과이고, 일상생활에서 그것이 제시되는 것이며 결혼생활의 형성과 유지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차욱(1983)에 의하면, Life-Style은 특정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조건하에서 나타내는 생활의 양태이며 사회전체 또는 일부계층의 차별적이고 특징적인 생활방식이라고 하였다.

가족에 초점을 둔 Moore(1963)는 Life-Style 이란 정형화된 생활방식으로서 가족성원이 여러가지 상품이나 자원 및 일어날 사건을 가족의 목표에 부합시켜 가는 일로써, 소비자의 상품구입은 Life-Style의 내용을 설명해주는 것이며 이것은 가족 신념체계가 구체화된 것이라 하였다(문숙재, 홍성희, 1988재인용).

Plummer(1974)는 Life-Style이란 1) 어떻게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는가에 대한 활동, 2) 그들이 접해있는 환경내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관심사, 3) 자신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의견, 4) 생활주기, 소득, 주거지역과 같은 몇몇 기본적인 특성들로 설명했다.

Nickell, Rice, Tucker(1976)는 Life-Style은 개인이 인정하는 역할과 역할의 조합을 의미한다. 즉 소비자, 시민, 고용인, 부모, 부부 등이 그 예로서 이러한 역할을 개인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어서 선택된 역할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준다. 만약 이러한 역할 조합이 집단의 여러사람이 공유하는 패턴이 된다면 이것을 Life-Style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여 인간생활에 있어서 사회적인 면의 인간관계와 개인의 역할수행에 초점을 두고 있다.

村田昭治(1979)은 "Life-Style이라 함은 생활주체가 생활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생활과제를 해결하고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독자적인 욕구성향에서 동기가 생기고 스스로의 가치태도, 생활목표, 생활설계에 의해서 방향이 정해지고, 기업, 정부, 지역사회 등 환경이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 정보와 기회를 선택적으로 채용하고 조합하고, 사회문화적인 제도적 조직으로부터의 체계내에서 하루, 일주일, 한달, 1년 또는 일생의 cycle을 통해서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생활의식과 생활구조 그리고 생활활동의 3가지 차원에서 구성되는 패턴화된 시스템이다"라고 한다. 이것을 다시 요약하면 Life-Style이라 함은 생활과제의 해결 및 충족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생활과제의 해결에는 언제나 재화와 서비스, 정보와 기회와의 조합과 선택이 수반되며 따라서 생활자원의 어떤 조합의 선택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고찰결과 Life-Style이란 사람의 생활 혹은 시간과 돈을 소비하는 유형으로서 활동(Activity),관심(Interest),의견(Opinion)의 통합적 체계를 의미하며,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인적 특성으로서 개인의 문화, 사회계급, 준거집단, 가족 등의 영향을 받아 습득한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개인의 가치체계와 개성의 파생물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시간계약지각 및 시간관리행동

(1) 시간계약지각의 개념

산업화로 인해 가정과 직장이 분리됨에 따라 가정은 총합적인 생산체계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가사노동을 통한 가정생산의 기능은 주부에 의해 전담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주부들의 1일 가사노동시간은 1960년대에서 80년대에 이르기까지 20여년간 크게 변화되지 않은(김외숙, 1992) 여건하에서 주부의 가사노동 전담은 시간계약의 상황을 초래하며, 특히 취업주부의 경우 다양한 역할수행

으로 인한 시간요구 때문에 심각한 시간제약을 지각하고 있다(Chung, 1988).

시간은 모든 장소에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부여된 객관적인 자원이지만 1일 24시간으로 한정되어 있고 축적될 수 없는 제한적인 자원이다. 또한 각 개인은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절대적인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한 개인에게 부여된 역할이 과중하여 시간에 대한 요구가 큰 경우 사람들은 시간자원의 제한성 때문에 시간의 부족을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시간제약은 자신이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한 에너지와 시간의 총요구가 너무커서 적절하게 조절할 수 없는 상태로 특히 시간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시간제약은 시간자원의 특성과 역할과중에 의해 유발된다. 시간제약은 노동과 가족생활 그들 사이에서의 상호 역할 갈등의 요소중의 하나로 발견되는 것으로 이 시간제약에 대한 두가지 측면을 정의한다면 첫째, 역할과다부담으로 부터의 시간고숙, 또는 시간부족을 의미하며 둘째, 모순되는 시간요구들로 인한 스케줄 갈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시간제약을 경험하지 않는 주부들도 교육수준의 향상과 의식변화로 인해 가사노동 시간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갖게된다. 즉, 시간집약적인 가사노동에 소비되는 시간을 감소시켜 자녀양육 및 가족원의 보살핌, 그리고 관리적인 가사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거나(한경미, 1987), 자기개발 및 사회참여를 위해 여가시간을 갖고자 한다. 이러한 욕구는 가사노동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다양화, 대량화되어 시간을 화폐로 대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충족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시간제약을 지각하거나 가사노동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주부들은 시장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시간관리전략을 사용(조성은, 1991)하여 시간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시간제약지각이란 다중역할에서의 시간의 총요구가 너무 많아 적절히 처리할 수 없거나, 한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동시에 다른 역할의 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역할이 서로 조화할 수 없어서 발생하는 시간부족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2) 시간관리행동의 개념

시간관리행동의 개념화는 포괄적으로 전반적인 관리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가족체계에서의 포괄적인 관리행동은 목표달성을 위해 관리자가 행하는 일련의 작업을 포함한 하나의 과정(Paolucci, 1977)으로서 미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존의 궁핍에서 비롯되는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정내의 인적, 물적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고 조직하여 욕구충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가정관리행동의 과업이라고 볼 수 있다(문숙재, 1980).

이러한 관리의 과정은 관리행동의 4가지 기능인 계획, 조직, 조정, 평가로 이루어진다(장명옥, 1981 ; 이길표, 1988). 따라서 시간관리행동은 시간의 효율적인 활용과 시간절약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 조정하여 그 결과가 생활에 어떠한 가치를 가져왔는가를 평가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김지연, 1993).

이러한 시간관리행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는 전략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우선 Strober와 Weinberg(1980)가 세운 가설적 전략은 1) 가정생산의 전체 양과 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가사노동을 위한 내구재 설비로 대체하는 방법 2) 가정생산의 양과 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그들의 가사노동을 위해 다른 사람의 노동(고용인, 남편 또는 자녀)으로 대체하는 방법 3) 가정생산의 양과 질을 줄이거나 또는 그런 생산에 종사할 때 더 능률적으로 노동을 하는 방법 4) 자원 봉사나 지역사회에 대한 시간 배분을 줄이는 방법 5) 여가나 수면에 대한 시간 배분을 줄이는 방법 등이다. 이것을 다시 크게 가정생산의 양과 질을 유지하는 방법, 가정생산의 양과 질을 줄이는 방법, 또는 가사노동을 기계나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는 방법, 생활시간의 조정여부, 가사노동의 사회화여부 등을 기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Nickols와 Fox(1983)는 위의 5가지 전략 중 자본재 설비, 편의품, 서비스의 이용은 화폐로 시간을 사는 것이므로 시간구매전략으로, 가사노동의 양이나 질을 줄이거나 효율성을 증진시키거나 분담하는 것, 여가 및 수면시간을 줄이는 것 등은 시간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거

나 절약하는 것이므로 시간절약 전략으로 구분하였다.

이승미(1989)는 Strober 등(1980), Nickols 등(1983)의 연구를 토대로 주부가 자신의 가사노동량을 경감시키는데 초점을 둔 가사노동수행방안으로 가족원간의 분담, 가정기기 및 상품의 대체, 가사노동 수행표준의 조정, 생활시간 분배의 조정을 제시하였다. 또 조성은(1991)은 Strober 등(1980)의 5가지 전략을 기초로 하되 우리나라 주부들의 자원봉사나 지역사회활동이 활발치 않은 실정을 감안하여 가족원간 분담, 가사노동의 기계화, 가사노동재화의 사회화, 가사노동 서비스의 사회화, 가사노동 수행표준의 조정, 가사노동 수행방식의 효율화, 여가 및 수면시간 분배의 7가지 전략으로 재구성하였다.

Lee(1988)의 연구에서는 직장과 가정에서 사용하는 시간관리전략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시간전략으로 계획, 목표설정, 수행, 우선순위 설정, 일정 정하기, 표준 변경, 타협, 시간 지키기, 책임감소, 지원받기가 있는데 많이 사용하는 전략은 시간 지키기, 우선순위 및 일정 정하기, 목표설정 등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리과정의 4가지 기능인 계획, 조직, 조정, 평가에 초점을 두고 목표설정 전략, 관리전략, 시간구매 및 절약전략, 책임회피 및 지원(위임)전략으로 구성하였다.

(3) 시간관리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

시간관리행동은 주부 개개인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그 사용정도 및 구체적인 사용전략에 있어 큰 차이를 나타낸다.

1) 연령

조성은(1990)의 연구에서는 20대와 50대의 주부들이 시간관리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대 주부들은 어린 자녀의 양육에 가족원의 분담을 필요로 하며 50대의 주부들은 성장한 자녀의 분담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Garriso와 Winter(1986)는 주부의 연령과 관리행동은 정적인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며, 이정숙(1983), 오운자(1983), 안유자(1985), 김지연(1993)의 연구에서는 주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시간관리 태도와 가정관리 능력이 낮아진다고 하였다.

2) 교육수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시간관리전략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성은, 1990 ; Barclay, 1970 ; Hugley 1976 ; 김정희, 1983 ; 이연숙, 1983 ; 안유자, 1985 ; 최현숙, 1991 ; 김지연, 1993).

3)취업유무

취업주부는 비취업주부에 비해 가사노동의 수행표준이 낮으며(이승미, 1989) 시간관리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승미, 1989 ; 조성은 1990). 즉, 주부의 취업은 시간계약을 유발시키는 요인인 동시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행표준의 조절을 유도하거나 증가된 소득으로 가사노동 대체재화 및 용역을 구입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이다.

4)가족수

가족수가 증가함에 따라 관리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지만, 선행연구결과 전문직 주부는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의 조력을, 비전문직 주부는 자녀의 조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이승미, 1989) 가족원간 분담과 같은 전략을 제공하는 요인으로도 볼 수 있다.

5) 시간계약 지각

홍성희(1994)의 연구에 의하면 시간계약지각이 시간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했으며, 이승미(1989)는 취업주부가 비취업주부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시간전략을 느낀다고 하였다.

6) 소득

시간관리 전략과의 관계에서, Hugley(1976), 안유자(1985), 최호숙(1992)은 소득이 높을수록 관리능력이 높다고 하였으며, 조성은(1991), 김지연(1993)의 연구에서도 소득이 높을수록 시간관리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관련연구의 고찰

(1) Life-Style

일반적인 Life-Style 연구는 주로 가정관리행동의 일환으로서 행동유형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 또는 생활의식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행해지고 있다.

Reynolds, Crask, Wells(1977)는 현대적 여성과 전통적 여성의 Life-Style을 비교 설명하였다. 그 결과 현대적 성향의 주부들은 생활, 사건, 일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전통적 Life-Style의 여성보다 자유로우며 나아가 그

것들에 대한 관심에 있어서도 다양하다. 또한 그들은 경제적 생활에 대해서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알뜰하며 외모에 매우 관심이 있고 운동과 여가생활에도 참여한다. 또한 전통적 Life-Style은 점차 쇠퇴해 가고 있으며 특히 취업주부에 있어 현대적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사일과 생활 활동 그리고 전통적 역할의 생활전반에 있어서 현대적 사고방식이 높게 나타났다.

Douglas와 Urban(1977)은 국제적 시장에 있어 여성의 속성을 밝혀내기 위하여 미국, 영국, 프랑스의 여성을 대상으로 Life-Style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여성의 Life-Style은 6가지 유형 즉 home factor, social factor, innovation factor, intellectual factor, role factor로 구분되었으며, 각 유형에 속한 여성들의 특성은 같은 유형에 속하는 여성일지라도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김경미(1986)는 도시주부의 Life-Style 유형을 7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들 유형과 인구통계학적 변수와의 관계를 살폈다. 그리고 Life-Style 유형에 따른 소비자 행동을 보기 위해 소비자 행동을 소비자 의식, 소비행동, 구매행동의 세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소비자행동의 상당부분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임정민, 임혜경(1988)은 도시주부의 Life-Style을 보수적 안정형, 성실형, 검약형, 건전 안정형, 소극적 침체형, 현대적 진보형으로 유형화하였으며, 현대적 진보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최수행(1989)의 주거지역 특성에 따른 Life-Style 연구에서는 주부의 Life-Style이 주거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차욱(1983), 박선영(1986), 임정민(1988) 등에 의하여 Life-Style과 인구통계적 특성의 관계가 고찰되었는데 소득, 주거형태, 학력, 종교 등의 인구통계적 변수가 Life-Style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구매행동과 Life-Style의 관계를 연구한 한귀석(1983), 한인자(1986), 이승영(1987), 강이주(1990)도 Life-Style이 구매행동 형성에 영향력이 큰 변수임을 밝혔다.

금융상품과 Life-Style의 관계를 연구한 남전희(1989)는 Life-Style이 신용카드이용에 있어서 Life-Style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을 밝혔다.

(2) 시간에 대한 관련연구

시간은 인간이 생활을 영위하고 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중심적 자원으로 에너지나 재화·지식 등의 자원활용과 이들 자원 간의 상호관계는 시간에 의해 결속된다.

가정학과 사회학에서는 생활시간의 구조 및 소비량에, 경제학에서는 시간의 경제적 가치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었다.

가정학에서는 1970년대 이후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시간을 가정자원 중에서 대표적인 인적자원으로 인식하고 주로 시간자원의 효과적인 사용과 관리 측면에서의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한경미, 1991). 또한 여성의 취업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주부의 취업으로 인한 시간제약과 가사노동시간의 변화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가족이 시간을 어떤 활동에 어떻게 할당하여 사용하는가에 대한 자료는 가정생활의 질과 생활양식, 그리고 가족이나 개인의 가치관을 나타내주는 척도가 된다는 인식에서 시간연구는 가정관리학의 중요한 분야가 되었다(김지연, 1993).

심리학에서는 시간사용에 관한 연구를 개인의 특성보다는 상황적 결정요인을 더 강조한다. 심리학자들은 시간지각은 외적·내적 요소들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며, 특히 환경심리학자들은 시간이 학습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개인의 시간에 대한 지각은 연령, 성별, 정신적·육체적인 상태, 개성, 동기, 문화 등과 같은 여러 환경적인 요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평가한다(신영철 1993).

경제학에서의 시간사용 연구는 1960년대 이후 신가정경제학자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 Schuz(1961)의 인간자본론, Becker(1965)의 시간배분론, Michael과 Becker(1965)의 소비자행동론, Lancaster(1967) 등의 연구들 들 수 있다(한경미, 1991). Mincer (1962)는 경제학에서 최초로 여성의 시장생산시간과 가계생산시간의 관련성에 관심을 가졌고, 그후 Becker Gronau(1973) 등에 의하여 가계의 행동을 분석하는 중요한 모델의 하나로서 시간배분이 연구되었다.

사회학에서는 집단간의 생활양식 및 복지에 대한 비교를 하거나(이기춘, 1988) 국가 간의 사회변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시간 사용을 연구하는데 특히, Szalai의 국제적 연구(1966) 이후 국가간의 비교연구가 두드러지고 있다. 사회학자들(Lee, 1977)은 어떤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시간사용자료는 생활양식의 지표이자 사회지표이면서 중요한 사회변화의 척도가 된다고 하였다(한경미, 1991).

기본적으로 사람은 생명유지를 위한 기초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수면과 식사와 같은 활동에 시간을 사용하고, 가정내 역할을 충족하기 위하여 가족원에게 시간을 사용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장일이나 기타 활동에 시간을 사용한다. 그런데 제한된 시간안에 여러 역할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으려면, 우선 많은 활동 중에 특정한 활동을 선택하고 시간을 여러 활동영역에 적정하게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와 같은 시간사용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는 생활양식이 아주 복잡다양하고 세분화되어 있어, 인간이 생활하기 위해 시간을 사용해야 할 영역이 과거보다 크게 증가한 현대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한정된 시간안에서 여러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취업주부에게는 효율적인 시간사용 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대두된다.

시간은 인간마다 공통으로 갖게 되므로 인적자원의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다. 사람들이 생활을 관리하고 통제하려 할때, 시간이 그 자원이 될 수 있으며 시간의 사용은 직접적으로 화폐, 에너지, 공간, 그리고 지식과 같은 다른 자원의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 즉, 시간계획은 바로 생활의 계획이 된다(Rice & Tucker, 1986).

(3) 시간계약지각 및 시간관리 행동

시간관리행동과 관련 변수를 연구한 한경미(1993)는 시간관리행동에 있어서 시간 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직업지위와 교육수준, 소득수준, 취업유무라고 하였다. 즉, 취업을 할수록 시간관리수준이 낮았으며 교육수준, 소득수준, 직업지위가 높을 수록 시간관리를 효율적으로 한다고 하였다.

전문직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갈등대처전략에 관해 연구한 구혜령(1992)은 가정과 직장 역할을 병행하는 취업주부는 시간계약과 시간

부족 및 양립불가능한 시간요구에서 경험하는 시간갈등의 수준이 심리적인 전이 및 긴장이나 피로에서 오는 긴장갈등의 수준보다 더 높은 것을 밝혔다. 또한 개인 및 가족관련 변수와 직무관련변수 모두 시간계약지각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가 지각한 시간계약과 가사노동의 수행방안에 관해 연구한 이기영(1990), 이승미(1989)에 의하면 취업주부가 비취업주부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시간계약지각을 가지며, 시간계약을 완화시켜주는 가사노동 수행방안의 이용은 취업여부 및 직업지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가사노동의 수행방안은 나름대로 시간계약을 보완해 주는 방안적 성격을 지닌다.

취업주부의 시간갈등수준 및 시간관리전략과 가정관리 만족도에 관해 연구한 성유진(1994)은 시간갈등수준이 시간관리 전략에 영향을 미치며, 시간갈등수준이 가정관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시간갈등, 시간관리 전략, 생활만족도와외 관계를 연구한 최수임(1993)은 시간갈등과 시간관리 전략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한경미(1991)의 취업주부의 생활시간과 시간갈등에 관한 연구를 보면 취업주부는 평일에는 생리적시간에 522분, 직업노동에 599분, 가사노동에 214분, 여가에 103분을 소비하고 휴일에는 생리적시간에 610분, 직업노동에 71분, 가사노동에 395분, 그리고 여가에 349분을 소비하였다. 생활시간사용으로 파악한 취업주부의 생활양식은 극히 단조롭고 단순하며 불균형적인 것으로 지적되었다. 사회경제적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소득이나 교육, 직업지위, 취업동기변수들의 수준이 높을수록 직업노동시간이나 신체적 가사노동시간이 감소하는 반면, 생리적 시간과 관리적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 그 중에서도 특히 적극적 여가시간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취업주부의 시간갈등수준을 보면 75%이상이 자주 시간에 쫓기고 시간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 생활시간과 시간갈등의 관계를 보면 직업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이 많을수록 주부는 시간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고, 여가와 생리적 시간에 시간을 적게 할애할수록 시간갈등의 정도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은(1991)의 주부의 가사노동 시간관리 전략에 관한 연구를 보면 주부들의 시간관리 전략은 주부들의 취업과 직업지위, 총소득, 교육수준, 시간제약지각, 성역할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 취업주부들이 비취업주부보다 시간관리전략의 사용에 더 적극적이었다

시간관리 행동이 시간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김지연(1993)의 연구를 보면 시간관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주부와 남편의 학력, 직업지위, 월평균 소득, 그리고 근무시간 융통성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관리행동 수준이 높을수록 시간갈등이 감소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가족 생활주기에 따른 교직주부의 시간제약 지각이 역할갈등과 시간제약 대처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장운옥(1992)에 의하면 가족 생활주기에 따라 역할갈등과 시간제약 대처전략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부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취업주부 및 비취업주부를 대상으로 유의표본추출하였다.

예비조사는 1995년 6월 20일 부터 30일까지 실시하였고, 결과 검토 후 부적절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본조사를 9월 26일부터 10월 9일까지 실시하였다.

총 700부를 배부하여 수집된 자료 621부 중, 부실기재한 것을 제외한 585부를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배경 분포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배경

N=585

변인	구분	N	%	변인	구분	N	%
주부의 연령	20 - 29세	85	14.5	가족수	2명	52	8.9
	30 - 39세	221	37.8		3명	93	15.9
	41 - 49세	198	33.8		4명	244	41.7
	50 - 59세	75	12.8		5명	146	25.0
	60세 이상	6	1.0		6명이상	50	8.5
월평균 소득	100만원이하	43	7.4	주부의 학력	국립	42	7.2
	101-150만원	174	29.7		중졸	88	15.0
	151-200만원	160	27.4		고졸	271	46.3
	201-250만원	84	14.4		대졸이상	184	31.5
	251-300만원	60	10.3		취업 유무	있음	341
			없음	243		41.7	

2. 측정도구

측정도구로 사용된 설문지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문항, Life-Style에 관한 도구, 시간제약지각에 관한 도구, 시간관리행동에 관한 도구로 구성하였다.

(1) Life-Style

Life-Style 측정은 윤복자(1994)의 『생활양식의 측정도구 표준화』척도를 그대로 채택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가족생활,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여가생활, 구대생활의 6개 하위영역으로서 총 4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형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Life-Style 점수는 『매우 그렇다』는 5점, 『약간 그렇다』는 4점, 『보통이다』는 3점, 『별로 그렇지 않다』는 2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을 주었다. 요인분석후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4$ 였다.

(2) 시간제약지각

시간제약지각을 측정하는 도구는 이승미(1989), 장운옥(1992)의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게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여 1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시간제약지각 점수는 『매우 그렇다』는 5점, 『약간 그렇다』는 4점, 『보통이다』는 3점, 『별로 그렇지 않다』는 2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서, 5점 Likert형 척도로 구성하였다.

시간제약지각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주부가 시간제약지각을 느끼는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0$ 이었다.

(3) 시간관리 행동

시간관리 행동에 관한 측정도구는 장운옥(1992), 김지연(1993)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연구자가 수정·작성하여 3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시간관리 행동점수는 『매우 그렇다』는 5점, 『약간 그렇다』는 4점, 『보통이다』는 3점, 『별로 그렇지 않다』는 2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서, 5점 Likert형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시간관리행동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요인분석후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2$ 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를 위하여 수집된 자료는 SPSS program를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으며, 구체적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의 배경분포를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 백분율, 평균을 구하였다.

(2) <연구문제 1, 2, 3>을 분석하기 위하여 피어슨의 적률상관(Pearson's Correlation)과 요인분석(Factor Analysis) 및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부표 1> Life-Style의 요인분석표

요인명	문항번호	내용	요인부하량
<요인1> 패션 지향형	4	항상 옷을 멋있게 입는 것이 중요하다.	.69316
	6	주위의 사람보다 색다른 옷을 입는 편이다.	.66897
	10	새로운 유행의 의류를 남보다 빨리 산다.	.66877
	12	옷을 구입할때 유행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64617
	9	의복에서 색상이나 디자인에 대한 감각은 매우 중요하다.	.62250
	8	옷치장에 돈을 많이 들이는 편이다.	.62222
	5	TV,신문,잡지 등의 패션정보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56675
	37	새로운 제품을 보면 호기심 때문에 사는 경우가 많다.	.43073
	41	광고로부터 얻은 정보는 물건을 살때 도움을 준다.	.42500
	40	보통 바겐세일 할 때 물건을 많이 산다.	.40303
22	집 구조나 형태는 서양식이 좋다.	.38219	
<요인2> 실내장식 지향형	25	최근에 유행하는 실내 장식 정보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68202
	27	실내장식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64694
	23	주석을 생활하기 편리하게 자주 개선하는 편이다.	.59023
	28	새롭고 유행하는 스포츠는 바로 해보는 편이다.	.52655
	26	집치장에 돈을 많이 들이는 편이다.	.47.080
<요인3> 식생활관련 추구형	15	화학조미료를 잘 사용하는 편이다.	.67889
	14	조리가 다 된 음식을 흔히 구매한다.	.66550
	13	인스턴트 식품을 잘 이용한다.	.62927
	36	값비싼 상품이라도 자신이 갖고싶은 것이 있을 때에는 돈을 빌려서 구입하는 편이다.	.57290
	39	물건이 얼마나 실용적인가 보다는 얼마나 미적인가에 더 관심이 많다.	.44828
	32	사업상의 목적을 제외한 1주일 이상의 장기여행을 자주 하는 편이다.	.44137
	38	구매할 때 상표를 고려하지 않는다.	.42837
<요인4> 실용 추구형	11	옷을 고를때 가격과 실용성을 중요시한다.	.60169
	17	평일의 저녁식사는 가족이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59267
	16	대화를 즐기면서 식사를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51623
	31	가능한한 돈이 들지않는 스포츠나 취미활동을 하고 싶다.	.51060
	1	이웃에서 도움을 청할때 기꺼이 응한다.	.38210
7	옷을 살때 물세탁을 할 수 없는 여름 옷은 드라이크리닝 값 때문에 사지 않는다.	.32942	
<요인 5> 취미 지향형	33	한가지 이상의 취미활동을 하고 있다.	.60304
	35	1년에 한번 이상은 여행을 하고 있다	.55746
	29	여행은 시설이 잘된 곳이나 관광지도 가고 싶다.	.55572
	34	건강을 위해 특별한 운동을 하고 있다.	.53098
	30	연휴나 정규휴가를 가질 수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스포츠, 여행, 취미활동을 하고싶다	.43442
	2	남편이 밖에서 일하고 부인은 집에서 살림하는 가정이 이상적이다.	-.36449
<요인6> 전통 지향형	3	명절에는 우리 고유의 풍습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61136
	20	명절에는 고유한 전통음식을 만들어 먹는다.	.55962
	18	건강식품, 자연식품, 무공해 식품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다.	.50846
	19	비만을 고려한 식생활을 한다.	.42181
	21	맛에 까다로운 편이다.	.40928

IV. 연구결과

1. 시간계약지각에 대한 Life-Style의 영향력

(1) Life-Style의 분석

Life-Style이 시간계약지각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본 조사대상자의 Life-Style을 유형화하기 위해 41개 문항을 요인분석하였다.

요인분석시 요인추출 방법은 주성분 분석법 (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회전방식은 직각회전 방식 중 하나인 Varimax접근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eigen value 1.0 이상인 요인이 12개로 과다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scree 검정한 결과 6개 요인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다시 요인수 6개를 지정하여 요인분석한 결과, 6개 요인을 최종 선택하였으며, 총 41문항 중 요인부하치 .5이상을 기준으로 문항간의 관련여부를 살펴본 후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최종 26문항만을 채택하였다. 요인분석한 결과는 <부표 1>과 같다.

그리고 6개 요인을 문항별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명하였다.

1) 패션지향형 (요인1)

이 유형은 주위사람보다 색다른 옷을 입고 옷치장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패션정보에 관심을 많이 가지며 유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패션에 생활의 가치를 두는 형이다.

2) 실내장식 추구형 (요인2)

이 유형은 실내 분위기를 자주 바꾸고 실내 장식과 정보에 관심이 많은 편으로 주택을 자주 개선하고 집치장에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이는 편이다.

3) 식생활간편 추구형 (요인3)

이 유형은 인스턴트 식품을 흔히 구매하여 식생활에 필요한 시간을 최소화함으로써 편리한 생활을 추구하려는 생활형태이다.

4) 실용추구형 (요인4)

이 유형은 가능한한 돈이 들지 않는 스포츠나 취미활동을 하고 가격과 실용성을 중요시하며 가족과의 단란함을 추구하는 유형이다.

5) 취미지향형 (요인5)

이 유형은 자신을 위한 시간을 내어 새로운 운동과 여행을 함으로써 자신을 변화하려는 시도를 하는 유형이다.

6) 전통지향형 (요인6)

이 유형은 우리 고유의 풍습을 지키며 고유한 전통음식을 만듦으로써 전통적 가치관을 고수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유형이다.

이상과 같이 본 조사대상자의 Life-Style 유형은 패션지향형, 실내장식 추구형, 식생활간편 추구형, 실용추구형, 취미지향형, 전통지향형의 6개 유형으로 명확하게 분류되었다.

이것은 패션지향형, 실내장식 지향형, 실용

추구형, 식생활 간편추구형, 취미지향형, 건강지향형의 6개 요인으로 분류된 윤복자 외 (1994)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건강지향형의 1요인을 제외하고는 5개 모든 요인이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2)시간제약지각에 대한 Life-Style의 영향력

Life-Style이 주부의 시간제약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전체주부,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영향력의 비교가 의미 있다고 생각되어 이를 구분하여 처리한 결과는 <표 2>, <표 3>, 과 같다.

시간제약지각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에 앞서 독립변수간에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한 결과는 <부표 3>과 같다.

회귀과정의 위반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Durbin-Watson계수를 산출한 결과 2에 접근하고 있으므로 잔차간의 자기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2>를 보면, 독립변인 중 취업주부의 시간제약지각을 예측해 주는 변인은 1가지 변인인 식생활간편 추구형(B= .18)으로 나타나, 취업주부의 Life-Style은 식생활간편 추구형일수록 시간제약 지각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시간제약지각에 대한 변인들의 설명력은 10%로 나타났다. 즉, 취업주부의 Life-Style이 식생활간편 추구형일수록 시간제약지각이 높게 나타났다.

<표 2> 취업주부의 시간제약지각에 대한 Life-Style의 영향력

독립변인	종속변인	
	시간제약지각	
	β	B
패션 지향형	-.003	.002
실내장식 추구형	-.20	-.09
식생활간편 추구형	.03	.18**
실용 추구형	.17	.05
취미 지향형	-.37	-.01
전통 지향형	.26	.08
회귀상수	33.86	
F 값	4.80***	
R ² 값	.10	

* P<.05 ** P<.01 *** P<.001

<표 3>을 살펴보면, 독립변인 중 비취업주부의 시간계약지각을 예측해 주는 변인은 3가지 변인으로 취미지향형(B= -.28), 식생활간편 추구형(B= .22), 전통지향형(B= .1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시간계약지각에 대한 변인들의 설명력은 11%였다. 여기서 비취업주부의 Life-Style 유형이 식생활간편 추구형, 전통지향형일수록 주부의 시간계약지각이 높고, Life-Style 유형이 취미지향형일수록 시간계약지각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비취업주부의 경우에는 시간계약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식생활간편 추구형과 취미지향형 및 전통지향형이 나타나지만 취업주부의 경우는 식생활간편 추구형의 변인만 유의도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취업주부가 직장일을 병행함으로써 비취업주부와는 달리 취미생활에 시간을 할애할 여유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식생활간편 추구형의 변인은 취업주부, 비취업주부 모두에게서 나타났는데, 이것은 Life-Style이 식생활간편 추구형인 주부들이 그만큼 식생활에 드는 시간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시간에 대한 제약울 많이 느끼는 것이라 생각된다.

<표 3> 비취업주부의 시간계약지각에 대한 Life-Style의 영향력

독립변인	종속변인 시간계약지각	
	β	B
패션 지향형	-.02	-.02
실내장식 추구형	-.02	-.01
식생활간편 추구형	.59	.22**
실용 추구형	.07	.03
취미 지향형	-.55	-.28***
전통 지향형	.54	.18**
회귀상수	22.43	
F 값	4.86***	
R ² 값	.11	

* P<.05 ** P<.01 *** P<.001

2. 시간관리행동에 대한 Life-Style의 영향력

(1) 시간관리행동 분석

Life-Style과 시간관리행동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본조사대상자의 시간관리행동을 유형화하기 위해 30문항을 요인 분석하였다.

<부표 2> 시간관리행동척도의 요인 분석표

요인명	문항 번호	내 용	요인 부하량
<요인 1> 시간구매 및 절약전략	6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세탁소, 옷수선집, 가구및 가전제품수리 전문가, 도매, 배관수리, 자동차 혹은 정원관리등)를 이용한다.	.75435
	11	구매할 수 있는 저장식품(간장, 된장, 김치, 고추장 등)을 이용한다.	.72333
	9	가사노동절약설비나 기구(전자레인지, 전자동세탁기/담수기, 진공청소기, 식기세척기/전기토스터)를 실제로 구매하거나 사용횟수를 증가시키므로써 가사노동시간을 줄인다.	.72010
	15	가족단위의 외식을 더 자주 한다.	.65350
	5	구매할 수 있는 편의품(냉동식품, 밀반찬류, 손질해 놓은 지게거리 및 채소류, 다림질이 필요없는 옷 등)을 이용한다.	.64920
<요인 2> 관리 전략	22	연초에 달력이나 수첩, 가계부 등에 집안행사(생일, 제사, 결혼식 등)를 미리 기록해 놓는다.	.52910
	20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일이 생각났을 때, 메모하여 계획한다.	.51032
	1	일을 하기 전에 언제, 얼마나 걸려서 할것인가에 대해 시간을 계획하고 조직한다.	.50021
	23	해야 할 집안일을 매주 또는 매달 정해 놓는다.	.65332
	8	중요하지 않은 일은 과감하게 넘어간다.	.62043
<요인 3> 목표설정	3	집안일을 할 때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일을 한다.	.60134
	2	가사노동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요한 가사노동부터 먼저 한다.	.58397
	29	집안일이 밀려도 꼭 해야 할때까지 그냥 놔 둔다.	.52010
	26	시간절약을 위해서 일상용품(치약, 비누, 휴지등)은 한꺼번에 많이 사둔다.	.50199
	21	매사에 목표를세우기 보다는 일이 주어지는대로 처리한다.	-.65890
<요인 4> 책임회피, 지원(취임) 전략	24	다음날 식단이나 해야할 일에 대비해 미리 생각해 본다.	.63227
	18	앞으로의 일에 대비해 장기적(1년이상)인 시간계획을 세우는 편이다.	.56772
	27	일할때 남에게 도움을 청하기 보다는 혼자서 처리한다.	.52980
	7	개인적활동(가정과 직업에 포함되지 않는 활동)에서 어떤 새로운 책임을 맡기를 거절한다.	.62978
	12	가정내에서 어떤 새로운 책임을 맡지 않으려고 애쓴다.	.61056
책임회피, 지원(취임) 전략	14	가족돌보기관련 서비스(유아원, 탁아소, 학원, 개인지도, 병원, 침술원 등)를 이용한다.	.58342
	10	합당한 이유를 들어 내가 하고싶지 않은 일을 회피한다.	.53456
	17	집안일은 계획을 세우지 않고 매일 반복적으로 정하고 나서 일을 시작한다.	.52445
25	오늘 할 일을 내일이나 다음으로 잘 미루는 편이다.	.50675	

요인분석시 요인추출 방법은 주성분 분석법(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회전방식은 직각회전 방식 중 하나인 Varimax접근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eigen value 1.0 이상인 요인이 6개로 과다하여, scree 검정 결과 4개 요인이 적당하다고 판단되었다. 다시 요인수 4개를 지정하여 요인 분석한 결과, 4개 요인을 최종 선택하였다. 총 30문항 중 요인부하치 .5이상을 기준으로 문항간의 관련여부를 살펴본 후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최종 24문항만을 채택하였다. 요인분석한 결과는 <부표 2>와 같다.

그리고 4개 요인을 문항별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명하였다.

1) 시간구매 및 절약전략

이 전략은 편의품 및 서비스, 노동절약설비나 기구를 구매함으로써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여 가사노동의 수행표준을 낮추어 가정생산에 소비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관리전략

이 전략은 활동을 통합, 세분화하고 일에 관련된 시간표나 스케줄을 작성하는 전략이다.

3) 목표설정전략

이 전략은 목표달성을 위한 활동을 규명하는 방법으로 장·단기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4) 책임회피, 지원(위임)전략

이 전략은 어떤 역할의 부가적인 책임을 더 이상 맡기를 거절하거나 그 역할의 책임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기를 회피하는 것이다.

(2) 주부의 시간관리행동에 대한 Life-Style의 영향력

Life-Style이 주부의 시간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시간관리행동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에 앞서 독립변수간에 다중 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부표 3>과 같다.

회귀과정의 위반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Durbin-Watson계수를 산출한 결과 2에 접근하고 있으므로 잔차간의 자기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 결과는 전체주부, 취업주부 및 비취업주부로 구분하여 <표 4>, <표 5>로 나타났다.

먼저 <표 4>를 보면, 취업주부의 시간구매 및 절약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식생활간편 추구형(B= .24), 취미지향형(B= .21), 패션지향형(B= .20), 실내장식 추구형(B= .19), 실용추구형(B= .18)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주부의 Life-Style이 식생활간편 추구형, 취미지향형, 패션지향형, 실내장식 추구형, 실용추구형일수록 시간관리행동의 전략 중 시간구매 및 절약전략이 높게 나타났다. 시간구매 및 절약전략에 대한 변인들의 설명력은 45%였다.

취업주부의 관리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패션지향형(B= .25), 실내장식 추구형(B= .24)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주부의 Life-Style이 패션지향형, 실내장식 추구형일수록 관리전략이 높았고, 관리전략에 대한 변인들의 설명력은 21%였다.

취업주부의 목표설정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실용추구형(B= .24), 실내장식 추구형(B= .24), 식생활간편 추구형(B= -.05)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주부의 Life-Style이 실내장식 추구형일수록 목표설정 전략이 높았으며, 식생활간편 추구형일수록 목표설정 전략은 낮게 나타났다. 목표설정 전략에 대한 변인들의 설명력은 24%였다.

취업주부의 책임회피, 지원(위임)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식생활간편추구형(B = .48)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주부의 Life-Style이 식생활간편 추구형일수록 책임회피, 지원(위임)전략이 높게 나타났다. 책임회피, 지원(위임)전략에 대한 변인들의 설명력은 25%였다.

<표 4> 취업주부의 시간관리행동에 대한 Life-Style의 영향력

독립변인	시간구매 및 절약전략		관리전략		목표설정전략		책임회피, 지원(위임)전략	
	b	β	b	β	b	β	b	β
패션 지향형	.21	.20***	.16	.25***	.08	.16*	.00	.00
실내장식 추구형	.34	.19***	.25	.23***	.30	.24***	-.00	-.00
식생활간편추구형	.44	.24***	.027	.02	-.04	-.05**	.59	.48***
실용추구형	.39	.18***	.09	.07	.25	.24***	-.04	-.03
취미 지향형	.32	.21***	.00	.00	.04	.05	-.07	-.07
전통 지향형	-.07	-.03	.00	.00	.15	.13*	-.15	-.09
회귀상수	5.04		12.59		4.54		15.09	
F값	45.96***		14.59***		17.48***		18.91***	
R ² 값	.45		.21		.24		.25	

* p<.05 ** p<.01 *** p<.001

<표 5>를 볼때, 비취업주부의 시간구매 및 절약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패션지향형(B= .15), 취미지향형(B= .13)으로 나타났다. 즉, 비취업주부의 Life-Style이 패션지향형, 취미지향형일수록 비취업주부의 시간관리행동 중 시간구매 및 절약전략이 높게 나타났다. 시간구매 및 절약전략에 대한 변인들의 설명력은 31%였다.

<표 5> 비취업 주부의 시간관리행동에 대한 Life-Style의 영향력

독립변인	시간구매 및 절약전략		관리전략		목표설정전략		책임회피, 지원(위임)전략	
	b	β	b	β	b	β	b	β
패션 지향형	.14	.15*	.12	.19*	.06	.12	-.04	-.06
실내장식 추구형	.42	.30	.24	.23**	.14	.18*	.05	.05
식생활간편추구형	.17	.09	-.14	-.10	-.20	-.20**	.53	.39***
실용추구형	.11	.06	.07	.05	.28	.29***	-.05	-.04
취미 지향형	.17	.13*	.14	.15*	.06	.08	-.10	-.10
전통지향형	.12	.05	.12	.08	.16	.14*	-.07	-.04
회귀상수	10.71		11.31		6.24		13.21	
F값	17.43***		10.20***		15.92***		6.52***	
R ² 값	.31		.21		.29		.14	

* p<.05 ** p<.01 *** p <.001

비취업주부의 관리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실내장식 지향형(B= .23), 패션지향형(B= .19), 취미 지향형(B= .15)의 순으로 나타나 비취업주부의 Life-Style이 실내장식 추구형, 패션지향형, 취미지향형일수록 관리전략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관리전략에 대한 변인들의 설명력은 21%였다.

비취업주부의 목표설정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실용추구형(B= .29), 식생활 간편추구형(B= -.20), 실내장식 추구형(B= .18)으로 나타났다. 비취업주부의 Life-Style이 실용추구형, 실내장식 추구형일수록 목표설정 전략이 높았으며, 식생활간편 추구형일수록 목표설정 전략이 낮게 나타났다. 목표설정 전략에 대한 변인들의 설명력은 29%였다.

비취업주부의 책임회피, 지원(위임)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식생활 간편추구형(B = .39)으로 나타났다. 즉 비취업 주부의 Life-Style이 식생활 간편 추구형일수록 책임회피, 지원(위임)전략이 높게 나타났다. 책임회피, 지원(위임)전략에 대한 변인들의 설명력은 14%였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모든 시간관리행동에 있어서 Life-Style의 영향력이 취업주부 및 비취업주부에서 나타나 따라서 시간관리 행동에

있어서 Life-Style 유형은 높은 영향력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시간관리행동전략 중 시간구매 및 절약전략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비취업주부와 취업주부를 비교해 볼때 취업주부의 경우는 시간구매 및 절약전략에 거의 모든 Life-Style 유형이 높은 유의차를 나타내어, 이것은 시간에 대해, 비취업주부에 비해 취업주부가 더 많은 시간제약을 느끼므로 시간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나타낸다고 볼수 있다. 즉, Life-Style 유형이 높은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3. 시간관리행동에 대한 제변인의 영향력

시간관리행동에 대한 제변인들이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의 결과를 살펴보면, 시간관리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Life-Style(B= .46) 연령(B= -.18), 월평균소득(B= .15), 시간계약지각(B= .12), 교육수준(B= .07)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시간계약지각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시간관리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시간관리 행동에 대한 제변인들의 설명력은 44%였다. 이는 월평균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시간관리수준이 높다고 한 한경미(1993)의 연구와 일치했으며, 시간계약이 시간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고 지적한 홍성희(1994)의 연구와도 일치했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시간관리행동이 낮아진다고 한 김지연(1993)의 연구와 일치한다. 그리고, 시간관리행동을 예측해 주는 변인으로서 Life-Style은 가장 높은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표 6> 시간관리행동에 대한 제변인의 영향력

독립변인	종속변인		시간관리행동	
	b	β	b	β
시간계약지각	.17	.12***		
연령	-2.1	-.18***		
교육수준	.9	.07*		
월평균소득	1.08	.15***		
Life-Style	.41	.46***		
가족수	-.00	-.00		
취업유무	-1.13	-.05		
회귀상수			42.31	
R ² 값			.44	
F 값			56.73***	

* p<.05 ** p<.01 *** p <.001

V.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주부를 대상으로 하여 주부들의 Life-Style 및 시간제약지각과 시간관리행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가정의 행복과 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Life-Style이 시간제약지각에 미치는 영향은 주부의 취업유무에 따라 어떠한가?

(2) Life-Style이 시간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주부의 취업유무에 따라 어떠한가?

(3) Life-Style과 시간제약지각 및 제변인이 시간관리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상과 같은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부산시에 거주하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총 700부를 배부하여 그 중 585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는 첫째, Life-Style 척도는 윤복자의 (1994)의 「서울시 거주자의 생활양식 측정 도구 개발 및 유형분석」 연구에서 제시한 Life-Style 척도로 채택하여 '패션 지향형' '실내장식 추구형' '실용추구형' '식생활간편 추구형' '취미지향형' '전통지향형'으로 유형화하였다. 둘째, 시간제약지각의 척도는 이승미(1989), 장윤옥(1992)의 선행연구를 참고로 작성하였다. 셋째, 시간관리 행동의 척도는 장윤옥(1992), 김지연(1993)의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1) 시간구매 및 절약전략, 2) 관리전략, 3) 목표설정전략, 4) 책임회피, 지원(위임)전략의 4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자료분석에는 SPSS program을 이용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백분율,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Factor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제약지각에 대한 Life-Style의 영향력을 보면, 취업주부의 경우 - 취업주부의 Life-Style이 식생활간편 추구형일때 시간제약지각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식생활에 있어서 인스턴트 식품이나 편의식품을 이용하여 시간을 절약하려는 취업주부들이 시간제약에 대한

지각수준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취업주부의 경우 - 비취업주부의 Life-Style이 식생활간편 추구형, 취미지향형일 때, 시간제약지각에 영향력을 주었다. 비취업주부들의 Life-Style이 취미지향형일 때, 시간제약지각에 대해 부적인 유의도를 나타냈는데 이것은 주부들이 자신을 위한 시간을 투자하여 취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들 주부들은 시간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사료된다.

둘째, 시간관리행동에 대한 Life-Style의 영향력을 보면, 취업주부의 경우 - 시간구매 및 절약전략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식생활간편 추구형, 취미지향형, 패션지향형, 실내장식추구형, 실용추구형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P < .001$), 이 변인들에 의해 시간제약지각의 설명력은 45%였다.

취업주부의 관리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패션지향형, 실내장식 추구형의 순으로 나타났다($P < .001$). 취업주부의 Life-Style이 패션지향형, 실내장식 추구형일수록 관리전략이 높게 나타났다. 관리전략에 대한 변인들의 설명력은 21%였다.

취업주부의 목표설정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실용추구형, 실내장식 추구형, 식생활간편 추구형으로 나타났다($P < .001$). 즉 취업주부의 Life-Style이 실내장식 추구형일수록 목표설정 전략이 높게 나타났으며, 식생활간편 추구형일수록 목표 설정전략은 낮게 나타났다. 목표설정전략에 대한 변인들의 설명력은 24%였다.

취업주부의 책임회피, 지원(위임)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식생활 간편추구형으로 나타났다($P < .001$). 즉, 취업주부의 Life-Style이 식생활 간편추구형일수록 책임회피, 지원(위임)전략이 높게 나타났다. 책임회피, 지원(위임)전략에 대한 변인들의 설명력은 25%였다. 비취업주부의 경우 - 비취업주부의 시간구매 및 절약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패션지향형, 취미지향형으로 나타났다. 즉, 비취업주부의 Life-Style이 패션지향형, 취미 지향형일수록 비취업주부의 시간관리행동 중 시간구매 및 절약전략이 높게 나타났다. 시간구매 및 절약전략에 대한 변인들의 설명력은 31%였다.

비취업주부의 관리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실내장식 추구형, 패션지향형, 취미 지향형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취업주부의 Life

-Style이 실내장식 추구형, 패션지향형, 취미 지향형일수록 관리전략이 높게 나타났다. 관리 전략에 대한 변인들의 설명력은 21%였다.

비취업주부의 목표설정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실용추구형, 식생활 간편추구형, 실내장식 추구형으로 나타났다. 비취업주부의 Life-Style이 실용추구형, 실내장식 추구형일수록 목표설정 전략이 높게 나타났으며, 식생활간편 추구형일수록 목표설정 전략이 낮게 나타났다. 목표설정 전략에 대한 변인들의 설명력은 29%였다.

비취업주부의 책임회피, 지원(위임)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식생활 간편추구형으로 나타났다. 즉, 비취업주부의 Life-Style이 식생활 간편 추구형일수록 책임회피, 지원(위임)전략이 높게 나타났다. 책임회피, 지원(위임)전략에 대한 변인들의 설명력은 14%였다.

이상과 같이 취업주부 및 비취업주부 모두에 있어서 Life-Style과 시간관리행동은 유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자기-관리, 시간관리, 그리고 개인유형과 영역에 관해 연구한 Verble & John Stanton(1994)의 '시간관리와 Life-Style은 상호 밀접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 연구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세째, 주부의 시간관리행동에 대한 제변인들의 영향력은 Life-Style, 연령, 월평균소득, 시간계약지각, 교육수준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시간계약지각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시간관리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Life-Style이 시간관리행동을 예측해 주는 변인으로서, 높은 유의도를 나타냈다. 그리고 시간관리 행동에 대한 제변인들의 설명력은 44%였다.

이는 시간계약 지각이 시간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지적한 홍성희(199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이정숙(1983), 오윤자(1983), 안유자(1985), 김지연(1993)이 주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시간관리태도가 낮아진다고 한 연구와 일치했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시간관리전략을 많이 사용한다는 조성은(1990)의 연구와 일치한다. 그리고 월평균소득에 있어 Hugley(1976), 최호숙(1992)의 연구를 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시간관리능력이 높아진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도 본연구에서 일치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본연구에서는 Life-Style을 변인으로 제시하여 분석한 결과 Life-Style이 시간관리행동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논의 및 제언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인간의 생활이 점점 더 다양화, 분업화함에 따라 Life-Style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리고 기혼여성의 직업에 대한 의식의 변화와 참여는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게 될때 나타나는 시간에 대한 개념 또한 커다란 의미를 가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Life-Style과 시간계약지각 및 시간관리 행동간의 영향력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상호간에 밀접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부들의 시간계약지각과 시간관리행동을 연구하는데 있어 Life-Style이 하나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알수 있었다.

이에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Life-Style과 시간계약지각 및 시간관리행동과의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하겠다.

본 연구를 기초로 후속연구를 위하여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주부가 사용하는 시간관리전략을 통해 효과적인 시간관리가 되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측정도구의 개발이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취업주부, 비취업주부 각각의 특성과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부족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문항개발이 요구된다

세째, 본 연구에서는 주부의 취업유무에만 초점을 둠에 따라 고려되지 못한 관련변인, 가족환경적 요인, 심리적·사회적 요인을 포함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

- 김경미(1986). 도시주부의 라이프스타일유형과 소비자행동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연(1993). 취업주부의 시간관리행동이 시간갈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주(1991). 도시주부의 라이프스타일 유형과 식품 구매행동과의 관계.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유진(1994). 가사노동 사회화와 관련 변인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유진(1994). 주부의 시간갈등수준 및 시간관리전략과 가정관리 만족도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복자와 6인(1994). 서울시 거주자의 생활양식 측정도구 개발 및 유형분석. 대한가정학회, 제 32권, 2호.
- 이기영(1990). 주부가 지각한 시간제약과 가사노동의 수행방안.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8권, 제 1호.
- 이승미(1989). 주부가 지각한 시간제약과 가사노동의 수행방안.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정빈(1988). 도시주부의 라이프 스타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6권, 제 1호.
- 장윤옥(1992).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교직주부의 시간제약지각이 역할갈등과 시간대처 전략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성은(1990). 주부의 가사노동 시간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수임(1993). 체계적 접근을 통해 본 기혼여교사의 시간갈등, 시간관리 전략, 생활만족도와와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수행(1989). 주부의 주거지역 특성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경미(1991). 취업주부의 생활시간과 시간갈등.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경미(1993). 시간관리행동과 관련 변수: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11권, 제 2호.
- 한경미(1992). 시간관리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가정과학연구소.
- 홍성희(1994). 주부의 시간계획 및 관리전략에 따른 관리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 32권, 1호.
- Alfred Adler, ed. by H.L.Ansbacher.(1969). The Science of Living. Achor Book. Doubleday & Co., N.Y.
- Bird, G.A , Bird, G.W., & Scruggs, M.(1983). Role-Management Strategies Used by Husbands and Wives in Two-Earner Famil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12.
- Chung, Y.L.(1988). Time Management Strategy, Job Satisfaction, Resear Productivity,and Life Satisfaction of University Faculty. Doctoral Disserfation, Iowa Stat. University.
- Deacon, R., and Firebaugh. Family Resource Management-Principles and Applications. 가족자원관리, 가정관리학 연구회 옮김, 서울: 한울
- David, G.Moore. (1963). Life in Mobile Suburbia, S.A.Greyser, ed.,Towan Scientific Marketing, AMA.
- Reynoles, F.D., M. R. Crask, and W.D. Wells. (1977). The Modern Feminine Life Style. Journal of Marketing.
- Gross, I.H., E.W. Crandall & M.J. Knoll. (1980). Management for Mordern Families. 4thed, Englewood Cliffs : Prentice Hall Inc.
- Duncon, H.D. (1969). Symbols and Social Theory. Oxford Univ. Press : N.Y.
- Hugley, B.C. (1976). Managerial Orientation and its Effect on Level of Living. Unpublished Master These, Iowa State Universtiy.
- James F. Engel, Roger D. Blachwell, David T. Kollat.(1980). Consumer Behavior. 3rd.ed, NewYork, Holt Rinehardt & Winston.
- Plummer, J.F. (1974). The Concept and Application of Life Style Segmentation Journal of Marketing. vol, 38.
- Max Weber, ed & Trans. by G.Roth & Wittich. (1968). Economy and Society (3vols). Bedwinster Press, N.Y.
- Nickols, S.Y & Fox, K.D. (1983). Buying Time and Saving: Strategies for Managing Household Production.

-
- Paolucci, B., Hall, O.A. & Axinn, N.W. (1977). Family decision making Anecosys tem approach. New York : Wiley.
- Robinson, John P. (1976). How American Use Time : A Social Psychological Analysis of Everyday Behavior, New York.
- Rice, A.M. & S.M. Jucker. (1986). Family Life Management.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Susan P. Douglas & Chistin D. Urban(1977). Life-Style Analysis to Profil Woman in International Markets. Journal of Marketting. p46-54.
- Strober, M.H. & Charles B. Weinberg(1980). Strategies used by Working and Nonworking Wives to Redues Time Pressurs.